

고등학교에 육아실을 설치하는 까닭



아르헨티나의 후후이주 알토코메데로에 있는 한 고등학교 여학생 30명이 임신한 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이 학교에 유아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200명, 학생 7명 중 1명이 임신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후후이주 교육부의 현장 확인에서 드러났다.

후후이주 교육부는 학교를 순회하며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교육에 앞서 교육부는 이 학교에 “임신한 여학생이 있는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가?” 라고 질의서를 보냈지만 학교 측에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수차례 보낸 질의서에 답변이 없자 결국 교육부는 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섰고 이에 여학생 30명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신한 학생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렇게 비율이 높은 학교는 처음” 이라면서 “아기를 가진 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 학교 당국이 교육부에 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후후이주는 청소년 임신 줄이기 위해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는 성교육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주로 성교육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후후이 교육부는 임신한 여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유아실 설치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학생들이 출산 후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면서 “최소한 고등학교는 편안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유아실을 설치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상금 걸린 마약탐지견

이탈리아의 마약조직이 원수처럼 여기는 한 마약탐지견에 현상금을 내걸었다.

화제의 건공은 이탈리아 경찰 마약수사대에서 맹활약 중인 ‘포초’. 포초가 마약수사대에 합류한 뒤 지금까지 찾아낸 코카인 등 마약은 2,000Kg이 넘는다. 가장 최근엔 살레르노에서 최상급 순도의 코카인 30Kg를 찾아냈다.

그러자 마약 조직은 “포초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5,000유로(약 6,000달러)를 지급하겠다.” 고 나섰다.

포초가 투입되는 곳마다 마약수사대는 쾌재를 부르지만 마약조직으로선 적개는 수만 유로, 많게는 수십 만 유로의 손해를 본다. 잭 러셀 테리어 종인 포초가 남다른 활약을 보이는 건 작은 체구 덕분이다. 포초는 다른 마약탐지견에 비해 몸집이 작아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 없어 신출귀몰한 방법으로 숨겨놓은 마약을 귀신처럼 찾아낸다.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워낙 작다 보니 터널이나 컨테이너 구석구석을 정말 잘 들어간다.” 며 “다른 마약탐지견이 찾지 못하는 마약을 100% 발견한다고 보면 된다.” 고 말했다.



탐지 능력도 타고났다. 포초가 진공 포장된 봉투에 들어 있는 대마초를 8m 거리에서 찾아낸 건 전설 같은 일화로 꼽힌다. 마약탐지를 놀이처럼 하는 것도 포초만의 특징이다.

최근 포초와 새롭게 팀을 이루게 된 마약수사관 산드로는 “마약을 발견한 포초에게 공과 과자 1개를 주면 정말 좋아한다.” 며 “포초가 마약탐지를 놀이로 여겨 유난히 실적이 좋은 것 같다.” 고 말했다.

포초는 9년 전 나폴리의 한 수의사에게 입양됐다. 포초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바로 이 수의사였다. 하지만 아들이 개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어 포초를 오래 데리고 있지 못하고 경찰에 재입양시켰고, 경찰은 포초를 마약탐지견으로 키웠다.

충격! 남성으로 성 전환한 이유

15년 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 남성이 다시 여성으로의 성전환을 꿈꾸고 있다.

잉글랜드 하트퍼드셔주 헤멜 험프스테드시에 사는 리해리스(60)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40대가 되어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남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성전환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이다. 그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이유는 아버지의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10대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앓았다.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집을 떠나 학교에 다녔지만 그는 학교 시간에 맞추어 학교 앞에서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해리스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2013년 폐기종으로 숨졌다.” 면서 “내가 더 이상 여자의 몸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고 성



전환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을 거꾸로 돌렸으면 좋겠다. 15년 후 겪게 될 악몽이 어떨지에 대한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며 “난 여자다. 남자가 될 운명이 아니다.” 라며 남성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리스는 결국 또 한 번의 성전환 수술을 계획 중이다. 그는 “불구가 된 것 같다. 남성의 몸에 갇힌 것 같다.” 면서 다시 여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부활교회
St. Anselm's Episcopal Church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Blvd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 후 면접 (개인별 통보)

E-mail: info@townnewsusa.com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